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3.12.29(금) ~ 2024.1.4(목)

제공일시 2023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3.12.29(금) ~ 2024.1.4(목)

제공일시 2024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결국 미국 전기차 브랜드만 IRA 보조금 혜택

- 미국 정부가 새해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모두 미국 자동차 브랜드로 채움. 아직 추가 선정 차량 발표가 남긴 했지만,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워 만들어진 IRA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임
-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북미 조립이나 배터리 부품·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4월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변화가 없음
- 미국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 지난해 43종에서 올해 19종으로 줄어든다고 1일(현지시각) 발표함
- 테슬라(모델 Y·3·X 등)와 리비안(R1S, R1T 등)이 각각 5종으로 가장 많고, 포드 3종, 지프·세보레 2종, 크라이슬러와 링컨이 각 1종씩 포함됨. 반면, 유럽과 아시아 브랜드는 탈락함

(조선일보 2023.1.3) 김아사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4.1.3) 성일만 기자

### 2. 中, 노동이사제·차등의결권 도입... 한국기업 '초비상'

- 중국 정부가 차등의결권·영미식 지배구조·수권자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회사법 전면 개정을 단행함. 텐센트·알리바바 등 주요 대기업과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 회사법에 담김
- 3일 중국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당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고 '6차 회사법 개정안'을 승인함.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임
- 중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조달 제도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선진화 하는 동시에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해 대기업에 대한 당의 영향력도 확대했다는 평가임
- 중국의 이번 회사법 전면 개정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변화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임

(한국경제 2024.1.3) 이지훈 기자

### 3. 中 '자원 무기화'에 맞서는 일본 "2025년 희토류 시굴"

- 일본 정부가 태평양에 있는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인근 심해에 매장된 '희토류'를 2025년 4월부터 시굴(시험적으로 파 봄)한다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함
- 자원을 무기화한 중국으로부터 2010년 9월 '희토류 수출 제한'을 당했던 일본은 이후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부심해 왔음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초 2025년 1~3월 시굴을 개시하려 했지만, 해저에서 진흙을 빨아들이는 장비인 양니관(揚泥管) 조달이 늦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영국 소재의 장비 제조업체가 양니관을 2025년 여름쯤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국민일보 2024.1.1) 이정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12.31) 김경민 기자

### 4. 중국, 원전 4기 추가 승인... 세계 2위 원전국 '눈앞'

-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절반 가량을 짓고 있는 중국이 최근 원전 4기 건설을 추가 승인함
- 31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보도를 보면, 중국 국무원원은 지난 29일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광둥성 타이핑링과 저장성 진치먼 등 2곳에 총 4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함
- 올해 중국 정부가 새로 건설을 승인한 원전은 총 10기에 달함

(한겨레 2024.1.1) 최현준 기자

## 1. 환경부,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시행

- 환경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함
-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4000만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임

(투데이에너지 2024.1.2) 차기영 기자

## 2. 과기정통부, 세계 AI 규범 논의 주도 위한 간담회 개최

- 인공지능(AI) 규범 제정을 두고 주요국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논의를 이끌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힘
- 간담회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AI 거버넌스 추진 동향을 짚고, 국내 실정에 맞는 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됨
- 참석자들은 AI 인공지능 규제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함

(연합뉴스 2023.12.28) 오규진 기자

## 3. 내년부터 지역별 전기 ‘자급자족’ 가능… 매년 11월 2일 ‘수소의 날’/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지원

-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각 지역에서 전력을 직접 발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됨
- 3월부터는 기업의 사업재편 유형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을 추가해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5월 1일 이후부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해 전기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정부는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수요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뉴스핌 2023.12.31) 김기량 기자

(뉴스핌 2023.12.31) 정성훈 기자

## 4. “온실가스 줄이자”… 서울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나선다고 31일 밝힘
- 국내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4.6%이나, 서울시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7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설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건물 분야 온실가스 82%를 감축하고, 18%는 녹지 확대 등으로 상쇄해 100% 감축을 추진할 예정임

(뉴스 2023.12.31) 이재은 기자

### 1. 아마존, 폴필먼트 센터에 수소 연료 전지 설치해 저탄소 수소 생산

- 아마존이 미 수소연료전지 생산업체 플러그파워와 협력해 아마존의 물류를 책임지는 폴필먼트 센터에 1메가와트(MW)급 전해조를 설치해 현장에서 저탄소 수소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일(현지시각) 환경에너지리더(environmentalenergyleader)가 전함
- 이는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위치한 폴필먼트 센터에서 이뤄지며, 새로운 전기 분해장치를 통해 생성된 수소를 사용해 최대 400대의 수소 연료 전지 구동 지게차에 에너지를 제공할 계획임
- 이 프로젝트는 전기와 물을 사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동력을 공급함으로써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임

(임팩트는 2024.1.3) 김환이 기자

### 2. 中 CATL, 인니 최대 니켈회사에 6000억 베팅

-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가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니켈 생산기업인 아네카 탐방(안탐)에 6000억원 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함
- CATL과 안탐은 향후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니켈 광석 처리 기술인 '고압산침출법(HPAL)'을 활용한 정제련소를 운영할 예정임. 또, 배터리 소재 생산 시설과 리튬 이온 배터리 공장 설립도 공동으로 추진함
- 배터리 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음

(이코노미스트 2023.12.30) 허지은 기자

### 3. 덴마크-영국, 세계에서 가장 긴 HVDC 케이블 송전 시작

- 영국과 덴마크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전기 케이블이 송전을 시작했다고 청정기술 전문매체 클린 테크니카가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함
- 바이킹 링크(Viking Link)라는 이름을 지닌 이 케이블은 덴마크 국영 계통 운영 기관인 에네르기넷(Energinet)과 영국의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의 합작 투자로 약 4년 동안 약 19억2000만달러(약 2조5171억원)를 들여 지음
- 첫 송전은 지난 12월 29일 덴마크의 풍력 터빈에서 발생한 전력을 영국으로 보내며 이뤄짐
- 케이블은 총용량이 1.4GW이며, 영국 링컨셔의 비커 펜 변전소와 덴마크 남부 유틸란트의 레브싱 변전소 사이 육지와 해저를 포함해 765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알려짐

(임팩트는 2024.1.3) 유미지 기자

### 4. 美, 반도체 규제 확대하자... 中, 28나노 노광장비 개발로 맞불

-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가 자체 기술로 28나노(nm·1나노는 10억분의 1m) 노광장비를 개발했다고 발표함
- 미국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 중심이었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를 범용 반도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소식임
- 이번 SMEE의 28나노노광장비 개발을 두고 SCMP는 "ASML의 EUV 노광장비에는 한참 뒤처져 있지만, 중국이 반도체 성숙 공정(구세대 반도체 공정)에 집중하는 가운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함

(조선일보 2024.1.1) 이해인 기자

## 1. HMM, 배출량 계산하는 ‘탄소계산기’ 개발

- HMM이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공급망 탄소계산기를 신규 개발했다고 3일 밝힘
- HMM 공급망 탄소계산기는 화물의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선박은 물론 철도, 트럭 등 다양한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임
- 화주는 HMM의 공급망 탄소계산기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사전에 선하증권(B/L)에 표기할 수 있음
- 또, 실제 운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된 배출량을 별도의 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음

(이데일리 2024.1.3) 김성진 기자

## 2. 한화 건설부문, 베스타스와 신안 해상풍력단지 터빈 공급 계약

- 한화 건설부문이 전남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에 덴마크 베스타스의 터빈을 설치함
- 베스타스는 한화 건설부문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터빈 우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2일 밝힘
- 베스타스는 V236-15.0MW 터빈 26기를 공급함. 이와 함께 해상풍력 단지 완공 이후 20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도 담당하게 됨
- 베스타스는 “우리의 주력 해상풍력 터빈 모델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이 탄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함

(더구루 2024.1.2) 홍성환 기자

## 3. LG전자, 전기차 충전기 미국 진출… UL 안전 인증 획득

- LG전자의 전기차 충전기가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시험) 인증 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을 받으며 안정성과 기술력을 입증받음
- LG전자는 지난 5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품을 생산한 데 이어 내년에는 미국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함
- LG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받은 제품은 내년 상반기 내 미국 시장에 출시 예정인 완속 충전기(11kW AC EV Charger)임

(이코노뉴스 2024.1.1) 원종서 기자

(더퍼블릭 2023.12.31) 이유정 기자

## 4. 삼성SDI-스텔란티스, 美 배터리 합작 ‘조기 가동’ 띄운다

-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미국 스텔란티스 합작 1공장을 조기 가동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들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됨
- 이 공장은 2025년 1분기 가동이 목표였으나, 조기 가동 방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또는 2024년 말 대량 생산이 예상됨
- 삼성SDI가 조기 가동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문으로 알려짐
-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2공장도 건설하기로 함.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 진출 및 확장을 결정한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전자신문 2024.1.1) 정현정 기자

## 5. 포스코홀딩스, 반도체용 희귀가스 국산화

- 포스코그룹이 중국 업체와 손잡고 반도체용 희귀가스 사업 확장에 나섬
-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2일 중국 중타이 크라이어제닉 테크놀로지(이하 중타이)와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을 위한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힘
- 포스코홀딩스는 중타이와 합작해 연산 13만Nm<sup>3</sup>(노멀 입방미터) 규모의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임. 이는 국내 반도체 시장 52%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임
- 내년 광양 동호안 부지에 공장을 착공하고, 2025년 말부터 상업 생산에 돌입할 계획임

(국민일보 2023.12.28) 김혜원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3.12.29(금) ~ 2024.1.4(목)

제공일시 2024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미 에너지부, 가전제품 효율 표준 최종 확정

- 미국 에너지부(DOE)가 가정용 냉장고 등에 대한 효율성 표준을 최종 확정해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에 나섬
- 에너지부는 상업용 팬(fan) 및 송풍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고, 냉장고와 냉동고 표준도 확정해 30년 동안 미국인들이 최대 1조달러(약 1301조원)를 절약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지난달 말 전함
- 에너지부에 의하면,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에 대한 최종 표준과 상업용 팬을 위한 표준 송풍기의 제안은 미국 국민의 공공요금에서 약 920억달러(약 119조원)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러한 표준은 30년 동안 누적으로 약 4억 2000만 미터톤의 위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 이는 거의 5300만 미국 가구의 연간 총 배출량에 해당하는 양임
- 에너지부는 이러한 표준이 확정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누적적으로 25억 미터톤 이상 줄일 것으로 추정함. 이는 30년 동안 가솔린 구동 자동차 1800만 대, 석탄 화력발전소 22개 또는 주택 1050만 가구의 배출량과 맞먹는 양임
- 현재 에너지부는 2023년에 30개의 제안 또는 최종 에너지 효율 표준을 발표하여 2023년의 행정부 목표를 달성함
- 효율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례 없는 조치는 에너지 요금 절감을 통해 평균 가족에게 연간 최소 100달러(약 13만원)를 절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먼저, 주거용 냉장고 및 냉동고에 대한 효율성 표준은 냉장고 또는 냉동고의 환경에 따라 2029년 1월 31일 또는 2030년 1월 31일까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를 30년 동안 준수한다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5.6조 BTU(British Thermal Unit)임. 이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에서 11% 절감된 수치임
- 에너지부는 이 표준을 통해 소비자가 30년 동안 배송 비용을 364억달러(약 47조원)를 절감하고, 탄소의 누적 배출량을 약 1억 100만 미터톤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이는 미국에서 1270만 가구의 연간 배출량을 합친 것과 거의 같은 양이라고 함
- 또한, 상업용 팬 및 송풍기의 경우, 미국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연간 33억달러(약 4조 2952억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번에 발표한 상업용 팬 및 송풍기의 표준은 미국 연방정부 최초로 발표된 것으로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발표한 효율성 표준을 따랐고, 제조업체에 명확하게 표준을 전달했음
- 에너지부가 제안한 기간 내에 채택되면 새로운 규칙은 2029년에 발효됨

(인팩트는 2024.1.3) 홍명표 기자